



# 한인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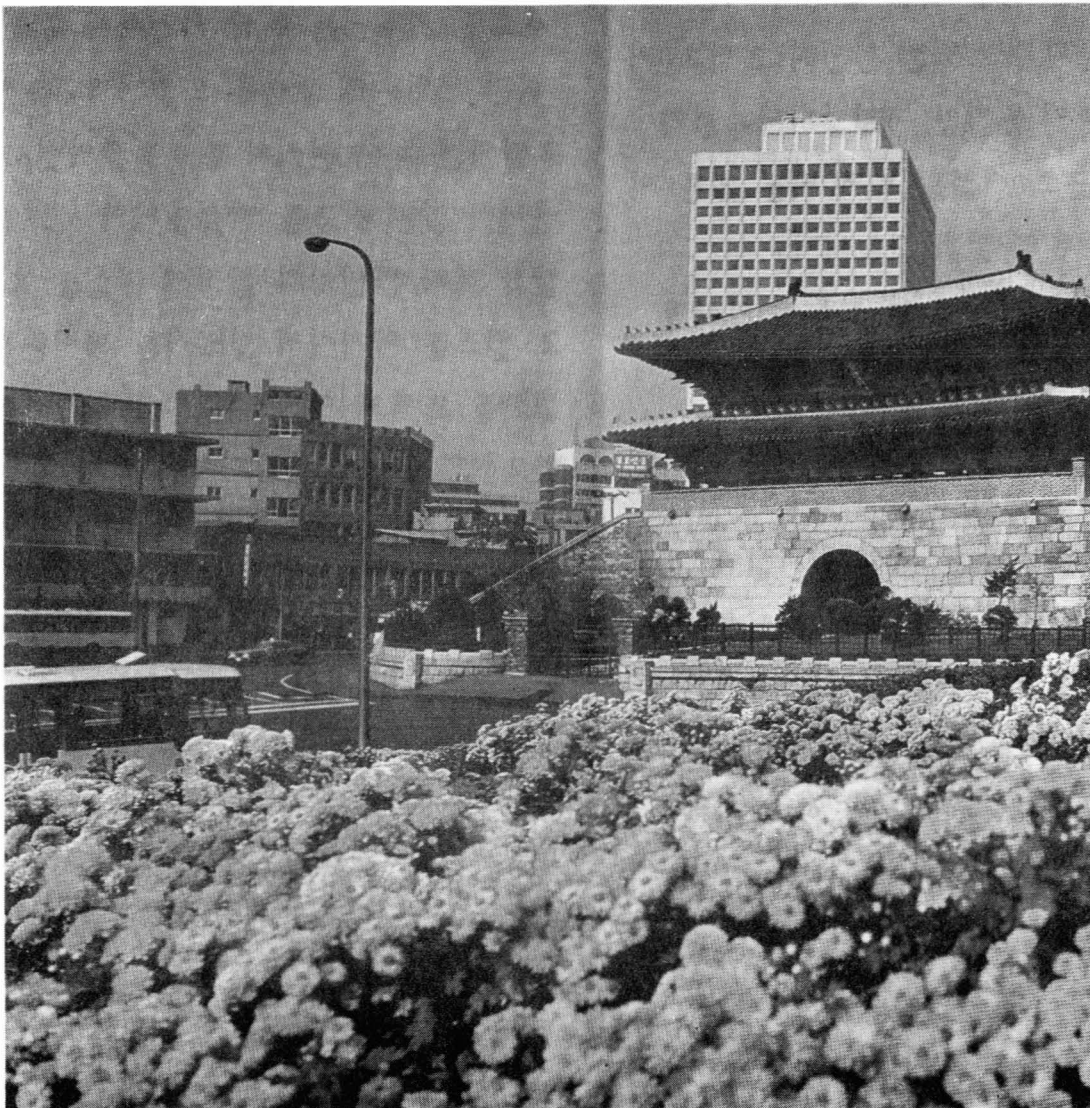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Yung Y. Shin Editor

VOL 6 NO. 5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AY 1978



*Namdae-mun Gate — past and present coexist side by side.*

# 회장 칼럼

고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곳 이민 생활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인사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는 운전 면허 시험 안내 책자를 한글로 번역하여 주 정부에서 마지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판이 되는 대로 타코마 한인회와 스포캔 한인회 그리고 여러 단체와 기관에 분배할 계획입니다. 면허 시험장에서 한글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은 이 책자가 발간된 후에 될 것 같습니다.

운전 면허 안내 책자는 5월 초순에 인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번역에 수고를 해주신 박 건홍 씨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 수고에 대해 변변한 보상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고포 회원들께서 그분을 만나실때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 면허 자체를 번역하신 권 영길 씨에게도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고마운 뜻을 저와 같이 표해 주십시오. 운전 시험 안내 책자를 한글로 발간하게 될때까지 타코마 한인회와 타코마 부인회 그리고

로부터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단체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인 학교 개교는 5월 6일 토요일에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로 시작하오니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씨애플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많은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심 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남 홍우 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글과 문화, 역사, 태권도 등 여러가지 발라스를 가질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진에도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적합한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에 수고를 해주시는 우리 한인회의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 부장이신 윤 부원씨와 총무부장이신 이 형상 씨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 한인사회 발전에 관심을 보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새삼 감사를 드리며 이번호의 인사의 말씀을 대하고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시기 바랍니다.

씨애플 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김 영 진 드림


**BEIKOKU**  
**DRIVING SCHOOL**



歡迎 學

PHONE  
**365-23 12**

韓國 · 日本 · 中國



## 워싱턴 부동산회사


Tel: 622-4120 WASHINGTON REALTY, INC.  
510 Terminal Sales Building 1932 First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1

### 안병용


(PHILIP B. AHN, BROKER)  
Office 622-4120  
씨애플 838-2010  
927-7778  
타코마

### 박영민


(Mike Y. Park)  
Off: 622-4120/Res: 838-4339




남서지역



북부지역



상업투자



타코마

## 부동산. 투자. 상담. 재산관리. 보험. 무료공증.

### 투고 환영

한인 회보는 약 1,500부 발송되고 있습니다. 고포들께서 보내 주시는 정성스런 원고는 성의껏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5일 까지 한인회 사서함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고포사회에 유익한 생활 정보나 문예작품, 논설, 기막등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 광고 안내

한인회보에 광고를 내실 분은 매월 15일 이전으로 광고외뢰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문제나 영업용등 광고 원고를 만드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연락전화: 624-7604, 624-7607.

### 편집 후기

고포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난호에 인사 드렸던 신 영운입니다. 이번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한인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한인회를 떠나도 항상 한인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며 평범한 고포사회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간에 편집에 도움이 되도록 원고를 보내 주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인사를 못드리고 지면을 빌어서 떠나는 인사를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광막한 겨울의 만주 벌판 한 구석, 밥버리지 의호의 죽음을 조상하는 송엄한 노태가 크게, 엄숙하게 울리었다. 그런 가운데 의호의 몸은 점점 식었다.

호를 금동이라 하고 우리 문단 단편 현대 소설의 제 일인자로 꼽는 김동인 선생의 1932년대 작품 "붉은 산"의 줄거리다. 지면 관계상 간추렸다. 살과 옷, 신발과모자, 분장까지 독자들이 갖춰주시기 바란다. 특히 외국에 사는 우리들은 다 같은 공감을 갖는 작품일 것이기에 일찌기 읽으신 분들은 한번 더 되새기자는 뜻이다. 1910년 한일합방이란 비명아태 나라가 배앗기고 해를 거듭할 수록 탄압과 학대가 심해지자 마침내 1919년 저 유명한 삼일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더욱 가해지는 강제 공출과 강제 징용 이를 견디지 못해 만주로, 북간도로 올라살러 가신 우리 선조들의 뼈아픈 생활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정든 산하를 등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던 내 부모님들. 개나리 북집에 발을 걸뚫이며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끌려가던 내 형제들이 눈에 선하다. 살아보려고 봄부림 치신 그들께 너무나도 무 자비한 만주 지주들의 텃세 - 학대! 이런 속에서도 항시 못 잊어 하는 내 조국, 내 등포! 붉은 산은 벌거벗은 내 조국이요, 흰 옷은 손걸음 상징한 배타 거룩가 아닌가? 조국을 잃은 슬픔에다 갖은 학대, 분만 아니라 만주까지 밟붙이기 힘든 우리 민족의 울분을 억누르지 못해 벌이는 주

인공의 미치광이 행동! 그러나, 끝내는 의기를 분발, 못 청년들이 감히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대신 저지르고 내조국과 내등포를 그리며 눈을 감지 않았는가? 봉쇄함을 보여주는 걸 말이요,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장렬함이 없지 않는 태단원이다.

지금, 보다 나은 내일의 내조국을 염원하는 우리 교포들이기에 과자의 나뭇대로 더욱 깊이 음미하며 정신 생활을 살피우는 양식으로 삼자.

특히 이 소설의 저자 김동인 선생은 1919년 삼일 운동이 일어난 그해 이월에 최초의 현대의 상징 시인으로 치는 주요한씨와 소설가 "늘봄" 전 영택 씨와 함께 최초의 순수 문예지인 "창조"를 내어 우리나라 현대 문학에 공헌함이 지대한 분으로써 유명하시다. 애석히도 1951년 입사 후퇴 때에 서울에 잔류해 계시다가 질병으로 서거하셨으니 향년 51세 었었다.

한국어 강의 - Univ. of Washington Summer School-에서. 대학의 학생 점 이된다. Lukoff 교수에게 문의 (543-6937) 할것.

NEW! 새로 개업한 NEW!  
**동양 식품점**은  
 항상 값이 싸서 좋습니다.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것이  
 현명하지요.  
 노스기트 동쪽 제일교회입구  
 전화: 365-5540

이 사회 의 틀 없다.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회의 이사들은 오 준걸 이사장, 황수철 이사, 김길량 이사 박재인 부회장, 정명화 부회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3월 31 일 오후 6시 30 분에 본 한인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토의 내용은 금전 출납건의 인수와 인계를 명확히 할것과 한인회보의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을 것 과 한인 봉사 센터에 근무하는 두사람 분에 대한 "씨타 자금"을 계속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노력 할것과 운전 면허 안내 책자를 조속히 발간하여 교포들의 요망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인회 운영상 공명하고 개방적인 사무처리로 이사와 임원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이 사회의 중요한 가결사항을 회보를 통하여 한인교포 사회에 공개되기를 요망했다. 이사회와 임원회등의 의견사항, 토의 사항을 한인 교포 여러분께 알리드림으로써 항상 활동적인 한인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포 여러분께서도 좀더 한인교포 사회에 관심을 갖으시고 한인 사회의 발전에 조금씩이라도 협조의 손길을 보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 없으면 짐은 사시고  
 진 있으면 짐은 미사도  
**김현중 부동산** (FRANK) HYUN CHONG KIM  
 • 무료상담: 골산 이리 로 맞은 버드리고.  
 • 무료상담: 정북한 관영 로 버드림니다.  
 • 회원용: 주력·아파트·호텔·도지  
 • 정포·기타사업 두지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3122

금년도 한인회의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교포 여러분의 참조를 바랍니다.

수입

씨타 환드	\$30,000.00
회비	\$3,000.00
광고료	\$3,000.00
※ 기부금	\$8,000.00
아리랑파티	\$6,000.00
기타	\$850.00
<b>총액</b>	<b>\$50,850.00</b>

지출

봉급	\$30,000.00
회보 인쇄비	\$2,500.00
주소록 인쇄비	\$1,980.00
문구용품	\$250.00
우편요금	\$400.00
피크닉, 운동	\$800.00
사무실 임대료	\$1,800.00
번역및확발류	\$240.00
기부금	\$400.00
아리랑파티	\$6,000.00
기타	\$800.00
전화	\$1,360.00
고용인혜택	\$800.00
운전면허책	\$1,300.00
한인학교 운영비	\$8,000.00
<b>총계</b>	<b>\$56,630.00</b>

※한인학교를 위한 기부금 \$4,000정도 포함.

### 교포사회에 출선수범을 다짐.

—한인회 청년부의 첫모임, 대성공—  
4월 15일 오후 7시부 터 "운스 태권도

도장"에서 뜻 있는 한인 청년들의 첫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한인회 청년부장인 윤학덕씨의 주관으로 질서 있는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되었는데 다수의 한인회 임원과 30여명의 일반 회원들로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교포 사회의 중추적 구실을 해야 할 우리 청년들은 후배와 후손들에게 선도, 계몽과 아울러 수범하고 웃어른들께는 공경과 예의로 교포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다지자고 결의했다. 따라서 모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특히 청년부장의 아량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에 본 체육관을 개관하여 모든 교포가 모여서 심신을 단련시키기로 합의 보았다.

이 날 폐회에 앞서 당 병석(전년도 기능사회장)께서 발기 기금으로 현금 20 불을 기부하였다.

청년부에 참석하여 교포 사회에 이바지 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624-7604, 624-7607.

와싱턴주 이중언어 교육 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15일(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Des Moines 감리교회에서 제 2차 모임을 갖었는데 이 모임은 2년마다 한번씩 열린다고 한다. 이날 회원은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특히 와싱턴주에서는 한국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본 한인회에서는 윤학덕 태권도 도장의 회원을 동원하여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었고 "아티랑과 봄 처니" 등의 노래를 들려 주었고 조경희 무용 연구소에서는 "화관무와 부채춤 및 장고춤, 달맞이" 등 다채로운 손서를 보여주었다. 이 와싱턴 이중언어 교육 연구원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사람을 위하여 영어와 이 나라의 생활 양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미국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조수로 일을 해주는 기관이므로 우리 한인 교포들께서도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인회보에도 공고를 헤드린 바와 같이 무료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임의 회원 숫자는 현재 천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거의 다 씨애틀 지구에서 오셨지만 멀티서는 아이다호주와 몬타나주에서도 참석을 하였고 우리 한국의 춤과 노래 태권도 시범 등을 관람하고는 무척 감개 무량해 하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인식을 모으며 접찬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량한 사람은 없었다. 삶도 동정이나 사랑을 단념한지 오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자~~ 손을 떠나기 전날. 송침지라는 노인이 그해의 소출을 나귀에 싣고 만주 주인 지주에게 갔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곧 송장이었다. 소출이 좋지않다고 맞아 부러진 송침지의 육신. 나귀등에 걸박되어 돌아왔으나 친척들이 몸을 내릴때엔 절명되었다. "원수를 갚자!" 왁자지껄한 동네 젊은이들은 남의 일이 아닌 듯 입어날 듯 했으나, 그분, 누구도 앞장서지 못했다. 오직 밭을 굴렀고, 부르짖었다. 여기서도 학대받는 인종의 고통을 하소하며 울었다. 그러나 그분 남의 입로 지주에게 반항했다가 재 밭자리까지 빼이기를 꺼렸다.

— 가련한 인생아. 인생의 거머리야. 가치 없는 인생아. 밥버리지야. 기생충아 — 이 자리에 온 키가 작은 삶을 내려다 보았다 "송침지가 죽은 줄 아나?" 나의 맘에 어찌 깟 쳐다보고 있던 삶의 얼굴은 아랫도 떨어졌다. 그 날밤, 고향을 떠난 만리 밖에서 학대 받는 인종의 가엾음을 생각코 나도 잠을 못 잤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는 우리의 처지, 나도 눈물을 금치 못했다.

이튿날 아침, 나를 깨우는 온 동네 사람들의 소리에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삶이 동구 밖에서 피부성이기 되어 죽었다는 말이다. 삶이라는 말에 눈살을 찌푸렸으나 의사라는 직업상 가뭄을 들고 달려갔다. 허리가 기억자로

뒤로 부러져 밧고 탕에 넘어진 삶. 아직 약간의 온기는 있었다. "의호! 의호!" 그러나, 그는 정신을 못 차렸다. 나는 응급수단을 다했다. 그의 사지는 무섭게 경련되었다. 이윽고 눈을 뜬 그. 끝없이 한참 쳐다보다가 눈동자가 움직였다. "선생님, 저는 갔었읍니다." "어디를?" "그놈 — 지주놈의 집에" 무얼?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 덩석 그의 식어가는 손을 잡았다. 잠시의 침묵. 또 잇단 무서운 경련이 사지에 있었다. 죽음의 경련이었다. 들기 힘든 작은 목소리가 또 흘러나왔다. "선생님." "왜?" "보고 싶어요. 전 보고 시..." "뭣이?" 입을 움직였다. 잘 들리지 않았다. "무얼?" "보고 싶어요. 붉은 산... 그리고, 흰 옷..." "아아! 그는 항시 고국과 동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돌려고 했다. 이미 부러진 손을 들리지 않았다. 머리를 돌이키려 했다. 힘이 없었다. 그의 마지막 힘이 허끝에 모여 졌다. "선생님!" "왜?" "저것 저것" "무얼?" "저기 붉은 산, 그리고 흰 옷이..." "나는 돌아 보았다. 그러나 거기는 황막한 만주 벌판만이 전개되어 있을뿐. 그러나, 다시 "선생님, 노래를 불러주세요. 마지막 소원... 노래를 해주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나는 머리를 꺼덕이고 눈을 감았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고즈낙이 부르는 나의 노래에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도 송엄한 합창이 울려 나왔다.

많이 배우는 것이 큰 고포 부형들의 후일의 기쁨이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난 월해어로 살고 있어는데 어떻게 기본개 살수 있을니까?" 하고 묻기에 내 대답이 "당신은 한국 식품점에 와서 물건을 많이 사니 한국의 사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니 기본개 살수" 라고 했더니 그 본 말이 "선생님, 그게 너무 지나친 귀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그럼 아무 시시한 일이라도 정성껏 하여 돈벌면 그것이 바로 제 8대 신비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본개 살수 있소이다."

났선 땅에 와서 사는 우리 고포들은 모두 다 귀자의 금지를 갖고 이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는데 공헌 하는 바가 많을 것을 자부하며 항상 기본 생을 지내자. 두 고은 우리 고국 국도 우리가 이룩하는 이 땅의 사회, 경제, 정치의 본을 받으며 힘찬 전진을 하며 행복하게 살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한국식품 중앙 식품** · 선물용품 · 생필품일체

○ 친절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한국인의 정 ·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 주소: 9641 - 15th Ave. S.W. Sea. Wa. 화이트센터 중상가에 있음.

○ 전화: 762-5620

"내 조국 네 동포"

이 형상

X X X은 조선사람 소작인만 사는 한이 십어로 되는 작은 촌이었다. 사면 보아도 산 하나 볼수 없는 광막한 만주의 벌판 한 가운데 놓인 이름도 없는 작은 촌이었다.

떠는 가을도 다 가고 어느덧 광포한 북국의 겨울이 만주를 찾아온 때였다. 이 때에 "삼"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 의호 라는 인물이 여기 나타났다. 고향이나 고향은 아예 알수 없는 그는 부전을 좋아했고 싸움 잘하고 트집 잘 잡고 팔부림 잘하고 식씨에게 잘 달떠들어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가 누 집이라도 가면 주인은 다른 방으로 피하고 일부 자리를 마련해 주곤 했다. 해가 낮이 되도록 심껏 잔뒤. 조반을 쟁해 먹고는 한 마디 사백도 없이 나가버린다. 그의 이런 청구에 응치 않으면 그것으로 트집을 잡고, 팔부림을 하기 까지 한다.

이런 삼이 이 동네에 머물자 점점 본론한 몇 사람은 점점 부니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안 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삼의 가리며 떼지우며 를 지키기 위해 밤을 세우야 했다. 동네 노인 과 젊은 이들은 몇번을 모여 삼을 내쫓기 위한 의논과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수 없었다. 그러다가 누가 죽으면 "애익, 삼이나 죽지 않고 .... " 했고 병에 걸리면 "애익, 이놈의 병, 삼한테로 가지" 했다. 암중 --- 누구나 삼을 동정하거나 사

부로로 영어 회화를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거나 직접 연락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전화447 3623 으로 연락하시면 와싱턴주 이중 언어 교육 연구원으로 바로 초청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를리 경선"씨 한해로 본의를 하셔도 됩니다. 전화는 935-2254입니다.

더 많은 고포 여러분께서 이들의 도움을 받으 으셔서 이곳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언어 의 불편을 덜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개척서 박사학위 받음.

오 개척 씨는 지난 3 월 10 일에 와싱턴 주 립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한국인으로써 또 하나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되었다. 오 박사는 부인과 슬하에 세자녀를 두고 계시며 이곳 미국에 오신지는 오래된 듯하다고 한다.

고 민을 위한 봉사 사무실

이웃 사랑 대평양 지구 피연환 관리

고 풍화에나 지난 4월 말일 경에 다운타운에 사무 실을 열으셨는데 이 사무실은 서북 배평양 지구 미 연합 관리고단에서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해 오신 우리 한국인 고포분들 중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워 오신 분들에게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져 사무실을 열었 습니다. 이민 오신 고포분들 중에서 어력우 신 분이란 예를 들면 1) 월 배어 대상이 되 어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해서 그동안 생활이 어력우신 분, 2) 직장 관계로 수입이 없 어서 담당 생활이 어력우신 분, 3) 신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시어서 수입이 없으신 분,

- 4)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력우신 분
- 5) 국제 결혼 하신 분으로써 이론을 하셨거나 가정에서 나오셔서 거주하실 곳 다져 없거나 생활이 곤란하신 분, 6) 직장에서 해이 없을 당하시어서 생활이 곤란한 분, 7)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생활에 곤란을 받고 계신 분, 8) 기타 이외에도 가정 문제 상담, 종교 상담, 일반 상담도 취급합니다.

사무실은 미 제일 연합교회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Bldg. ) 빌딩에 5

층 "502호 A"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 주소와 사무실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 811 5th Ave. Sea. Wa. 98119

전화 : 623-4112 단수요원은 오후 1시~4시까지 사무실 시간 :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4:00

·용 오가정께 전화 예약 바랍니다

고포 여러분의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사적 기록 수집중

금년 1978년은 세월을 와싱턴주 한인회 창립 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인회 이사, 임원 공동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도 결의했습니 다. 동시에 한인회 창립이래 한인회 사적 기록 을 수집, 기록하여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회원들 중에서 한인회에 관한 사적기록, 사진 초창기의 회원 명단, 회보 등을 갖고 계신 분 은 하기인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회 창립 11주년 기념 준비위원

한 만섭 (206) 641-5739

많은 고포 여러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 국외거주자 의사 면허

### 시험 자격 부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재외 거주자중에서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 자격 시험을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의사 면허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허가 하였다고 씨애틀 와싱턴주 총영사관에서 발표하였다. 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고포는 총영사관이나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회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총영사관 : 682-0132, 682-0133

한인회 : 624-7604, 624-7607

## 한인회, 학생회 공동 주최

### 야유회 계획

씨애틀 한인회와 학생회에서 년초부터 계획을 해오던 공동 주최 야유회를 "링컨파크"에서 5월 27일에 오전 11시에 갖기로 결정하고 이미 장소의 예약도 해놓았으며 그 날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오니 많은 고포 여러분들의 참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링컨파크의 웨티보트를 타는 곳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파킹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겠어오니 많이 참석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한인학교 개교 임박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회에서는 고포여러분의 오랜 숙원이던 한인학교를 1978년 5월 6일 오전 10:00시에 개교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장소는 다소 변경이 되었으므로 밑에 상세히 주소를 알려드리겠어오니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2차 한인회 이사, 임원 공동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고포여러분의 자제를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학생 한명당 20불을 받고 둘째아이는 10불을 받고 셋째아이는 무료로 입학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등록금은 일년에 한번만 내시면 됩니다. 한인학교의 예산이 일년에 \$8800,00정도 들게 되므로 고포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3524 95th. N. E.

미국 침례교회.

35th 와 95th의 중간지역.

## 한인학교 교사초빙(모집)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회에서 개교하는 한인학교에서는 개교를 앞두고 교사를 약간명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시고 도움을 주실 분은 5월15일 까지 이력서를 지참하시고 한인회로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교사에게는 약간의 보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624-7604, 624-7607.

한인학교은 매주 토요일에만 봉사하여 주시면 됩니다.

인데, 다른 고포는 "고국서 불과 십여시간이면 갈수 있는 이 새천지 자유의 나라에 만물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 날 보내 주셔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지내 오다 "인것을 알게 된다.

우리 고포들은 이민은 이 땅에서 가지 각색의 직업, 직장을 갖고 산다. 나의 경우는 비행기에 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몇해 전에 747 정보 제트가 나왔을때 내가 그 비행기의 한 작은 부분을 설계 개조한 적이 있다. 지금도 씨애틀 비행장에 가기만 하면 정보 제트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내가 설계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 해주며 자랑하곤 한다. 내가 정보 제트의 한 작은 부분을 설계 했다는 것보다 세계 최선의 문명기계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것보다 우리 고포들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전 여행자가 정보 제트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의 어깨는 한층 더 으쓱해진다.

세계에 7대 신비가 있었다면 제 8대 신비는 오늘날 미국의 물질문명, 사회, 정치 바로 그것들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사상 최초의 물질 문명을 건설하는 데는 먼저 이 땅에 찾아온 서양 사람들의 공헌이 컸겠지만 오늘날 뒤늦게나마 도착한 우리고포들도 이 위대한 제 8대 신비를 건설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배를 만드는 용접사나, 통조림 공장서 수고하는 아낙네나 모두 다 이 위대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결코 이 나라에 와서 세방사리를 한다고 생각지 말고 한 자유인으로 이 이상사회건설에 당당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자.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요 여러 민족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강해진 줄로 안다. 철에 탄소를 좀 섞어야 단단한 강철이 되고 무른 금도 동을 좀 섞어야 단단한 금 합금이 되어서 실용도가 높아진다.

우리는 이 땅에 탄소요 등의 역할을 하며 지상 낙원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보면 우리의 기쁨은 더 한층 커짐을 느낄수 있으리라.

우리 한인 학교가 곧 개교 된다. 고포들 중에는 벌써 큰 감격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그런데 일부 고포 부형께서는 "우리 아이는 한글 공부를 통 하려 들지 않으니" 하며 근심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우리 애는 한국놈인데 한글 공부를 안겠다니 참 특이한 자식이로구나. 그놈 무엇인가 되겠는가 보다" 하며 기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특이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답이 하는 흥내를 내지 않고 제 혼자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창조성이 있어야 돈도 잡는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잘하는 자는 부모만큼은 되겠지만 하라는 대로만 하는 버릇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될수도 있다. 말 잘 안듣는 자녀를 걱정 말고 창조성 있는 자녀를 권력해 주고, 이 사회에서 좋은 것을

구두수선가게를  
(SHOE REPAIR)  
팔겠습니다.

\* 기술지도 해드립니다.  
\* 부부에 알맞는 가격입니다.

주소는 106 PIKE ST. SEA. WA. 98101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으니 육체도 조속 하단 말인가? 이런 질문은 미국 가정에는 향다반사인가? 내 입이 친척에 만일 우리 아이의 생일 선물로 미녀와 호렙방 음식을 선물로 준다면 나는 거의 절고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백인들의 윤리관과 동양인의 윤리관을 어떻게 조화시켜 가르쳐야 할까?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다소 억제와 금지가 많은 교육법을 입시에 풀어 이곳의 개방적이고 자율에 맡기는 식대로 따를 것인가?

그 많은 문명의 혜택과 고도의 문화 뒤에 괴기 범죄와 섹스, 동성연애와 마약 흡연이 판을 치는 미국 천지에 우리 2세들을 마음놓고 풀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마약에 대해서 갱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 귀가 닳도록 주의를 환기 시키나 섹스에 대해서는 어떤 가르침이 효과가 있을까? 자연의 흐름에만 맡길 것인가? 논어에 그랬듯이 인간의 선의만 믿어보고 강조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인간의 선의를 믿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부모가 바쁘더라도 애정과 이해로써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의 좋은 카운셀러가 되려야 하고, 선의의 인간으로 완성 될 때까지 가정 환경 및 인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외국 생활은 끊임없는 투쟁과 고통과 긴장의 연속이요, 어떤 때는 기막히게 고독할 때도 있다. 이런 모든 조건을 잘 극복해서 살아가기 위해 부모들의 강인한 의지와 서로간의 협력, 따뜻한 동족애가 항상 우리들

의 주변에 넘치기를 애타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논 단

"기쁘게 살자"

한 만 섭 박사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어머니가 해가 나나 비가 오나 늘 근심 걱정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기쁘고 행복하게 살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돼 새겨 보자. 어떤 고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살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짚신 장사요, 다른 아들은 우산 장사였었다. 해가 나는 날이면 우산 장사를 못하는 아들이 불쌍해서,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짚신 장사를 못하는 아들이 불쌍해서 그 어머니는 내내 근심 걱정, 불행 속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마을의 현인을 만나 "해 나는 날에는 짚신 장사 잡되는 아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가 잡되는 아들을 생각하며 해가 나나 비가 오나 기쁘게 살라"는 말을 듣고 그 어머니는 그후 항상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풍습과 사고 방식이 전혀 다른 미국 땅에 찾아와 사는 우리 고포들에게 꼭 의미가 있는 줄로 안다.

내가 여러 고포와 접촉하는 가운데 각자가 얼마나 정반대 되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일 예를 들면 한 고포의 기도는 "이억 만티 고국을 떠나 이 낯설은 외국 땅에 와서 고달픈 생을 하루하루 지내오다"

## 입 학 원 서

(씨애틀 한인학교)

이 양식을 오려서 보내십시오.

학 생 이 름	한 금		남	한국에서외학년	생년월일
	영 문		여	현 재 학 년	
주 소					
학 부 형 이 름	한 금		전 화		
	영 문				
학 생 의 특 기, 취 미					
기 타 의 요 망 사항					

위와 같이 입학 원서를 제출합니다.

서기 1978년 월 일 보호자

### 한인봉사센터를 이용하십시오.

고포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인 봉사 센터는 작년 부터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고민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로써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고민여러분의 불편하신 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한인 봉사 센터를 잘 이용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을 위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립니다.

본 봉사센터에는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곳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기관입니다.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근무시간은 08:30 - 17:00.

1. 직장 알선.
2. 법적문제 상담.
3. 가정문제 상담.
4. 통역 및 번역.
5. 병원 관계 안내.
6. 이민국 안내.
7. 한인 상호간 연락
8. 한인학교 운영.

### 영어 회화 학교 개강

지 역 : SOUTH WEST  
 장 소 : Delridge Way S.W. & Alaska  
 날 짜 : 1978년 5월 10일.  
 수, 목요일(오후 7:00 8:30)  
 지 역 : NORTH EAST  
 장 소 : Laurelhurst Community Center  
 날 짜 : 1978년 5월 8일.  
 월, 수요일(오후 8:00 9:30)  
 1. 희망자는 직접 찾아갈 것.  
 2. 희망자는 한인회로 연락할 것.  
 3. Chuck Kadrevis 447-3623 연락 바람.

### 1978년도 한인 주소록

고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해 오던 78년도 한인 주소록이 곧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인 회비나 기부금 납부자에게 무료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 도와줍시다

## 한인 교포를 위한 어느 호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교포 "이철수"군은 그의 결백함을 사법 당국을 통하여 여러번 호소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포 여러분께 그의 무죄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포 소년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급기야는 사형을 면치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딱한 사정입니다.

철수군은 12살에 국제 결혼한 어머니를 찾아 미국에 왔는데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웬만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돌봐 주지 않고 인도해 주지도 않아서 심외에 찬 생활을 하던중 학교 당국과 의사 불통에서 온 오해로 말미암아 소년원으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는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며 드디어 1973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진범으로 검거되어 입급살인범으로 판결을 받고 트래이시 형무소에 수감되어 4년 반에 걸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지난해 있었던 형무소 안에서의 불상사로 인하여 사형을 면치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철수군의 개인의 불행이라기 보다는 30만 재미 한인 교포의 앞으로의 미국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건인 동시에 우리 교포 사회의 비중을 가늠하는 계기로 생각하며 영어를 못하는 힘 없는, 소수민족 중의 소수민족인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철수군을 구출하고 우리의 귀여운 교포 자녀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필코 새로운 재판을 받게 해야된다고 믿고 "이철수 후원회"를 조직하고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하오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일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 재판을 청원하고 정확한 증거 수집과 증인 채택등 재판 준비를 위하여 상당한 경비가 요하므로 교포 여러분의 경제적 지원을 호소하오니 아택 주소로 성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택 주소로 철수군이 긍정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편지를 보내주시시오.
3. 철수군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편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형무소 주소 : Mr. Chol Soo Lee  
B - 51845 P.O.Box600  
Tracy Calif., 95376
5. 각 종교 단체에서는 이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수표나 편지를 보내실 주소 :  
Committee for Chol Soo Lee's  
Legal Defence  
c/o Synod of Pacific  
2431 H St.  
Sacramento Calif., 95816

이상에 기록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온 편지를 줄여서 게재한 것이나 씨애틀에 살고 계신 교포 중에서도 이철수군을 도와 주실 분은 많으신 후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이용 및 신간서적 안내

씨애틀 공립도서관에서는 많은 신간서적을 준비하고 한국 교포 여러분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한국말로 된 서적을 다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포 여러분들께서 책을 빌려 보시고 싶으신 분은 도서관에 등록을 하시고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입해야 할 사항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3년간 유효하며 씨애틀 시 밖에 사시는 분은 카드를 받을 수 없어도 간단히 책을 빌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문의 하십시오. 이 도서관에서는 금년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한국 책을 구입해 놓았는데 교포 여러분의 많은 애용이 없으시면 모처럼 주정부에서 받게 시작한 예산이 다시 줄어들 것이므로 많은 애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간 서적을 몇 가지만 압력드립니다만 이밖에 많은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김득황 씨의 "한국 종교사"
2. 김분옥 씨의 "한복 생활"
3. 김기동 씨의 "한국 전기 소설선"
4. 안수길 씨의 "제삼 인간형"
5. 최인훈 씨의 "웃음 소리"
6. 최요안 씨의 "나는 둘"
7. 곽종원 씨의 "사색의 반역"
8. 서정주 씨의 "한국의 현대시"
9. 황수원 씨의 "너와 나 만의 시간"

앞에 소개한 책들 이외에 100여권의 한국 책이 준비되어 있어오니 많은 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직업 재활국 안내(와싱턴주)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시는 교포께서는 직업 재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육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므로 직업에 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로 인하여 그러한 지장을 받는 분.
2. 직업 재활 봉사를 받음으로써 실제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대상이 되시는 분은 능력평가, 상담과 지도, 훈련과 직업 알선 등이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봉사는 각 개인의 필요와 경제적 능력 여하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분에게는 직업 재활 봉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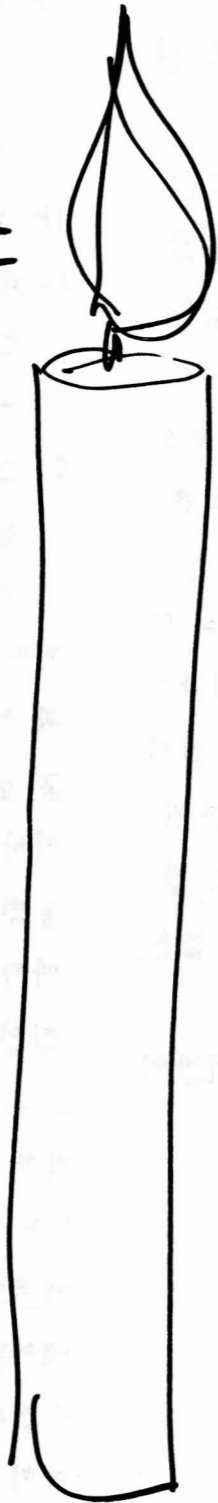
그 외에도 수업료와 교과서, 장비 등에 대한 경비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교통비, 생활수당 등도 제공됩니다. 누구든지 본인의 신체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직업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본 한인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와싱턴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 재활국"에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으니 교포 여러분 중에서 아용하실 분은 연락하여 주십시오.

전화 : 624-7604, 624-7607.

5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9시반

6:00 - 9:30  
p.m.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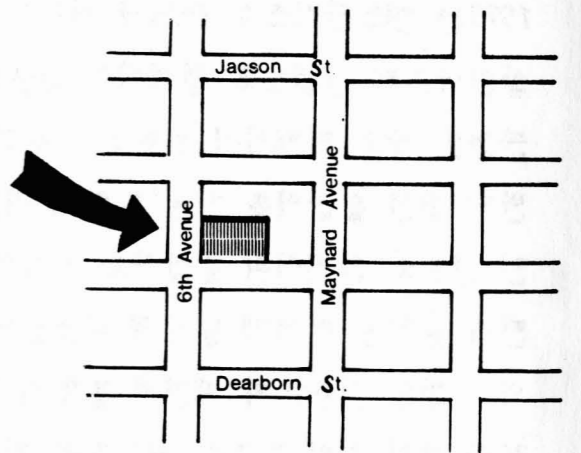
일

배추	25 ¢ / lb.
파	.15 ¢ / ea
마늘	1.19 / lb
적갈	.79 / lb



최고 안심  
불고기 \$ 2.19 / lb.  
진간장 \$ 3.50 / GAL  
TWO Per Family

코리아센터약도



## 한인회 사무실 직원 채용 공고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회에서는 "한인봉사센터"에서 봉사해주실 편집인을 한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직인 분중에서 구수입이 저소득층 이어야 합니다.

특히 한글 타자기를 치시는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1978년 5월 10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와 사진을 한인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면담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한인 봉사센터에서 카운슬러로 일하시던 "지나 하"께서는 "웨스트 씨애틀 잡 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부근에 사시는 고포 여러분께서 직장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께서는 이분을 찾아 가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것입니다. 한인회 직원은 주정부의 증인이 있어야 채용을 함.

## "시 감상"

### 햇살이 퍼지는 아침

단꿈에서 깨어 나와  
창밖으로 보이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다.

시원한 아침 공기는  
전신을 씻어 주는 듯 달콤하다.

물감을 칠한 듯이 파아란 하늘과  
초록의 키 큰 나무들,  
아침의 파릇 파릇한 작은 잎새들  
더욱 더 귀엽고 더욱 더 사랑스럽기만 하다

잔 바람에 하느적거리는  
삼가지에 달린 개롱한 잎파리는  
가만히 보면 볼수록 그저 즐겁기만한  
새 아침이다.

## "나 사는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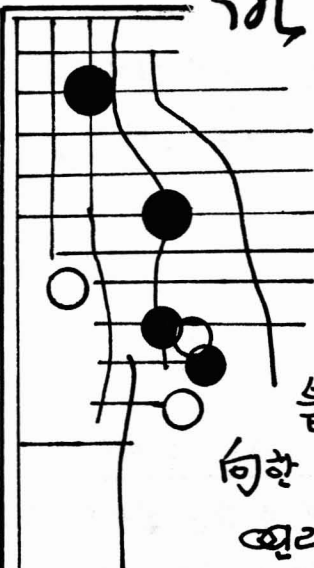
나 사는 동안 수많은 날들이 가고 오고  
수많은 사연들이 피고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지날 때  
단 한가지  
이 가슴 깊은 곳에 남는 것은 . . .

해가 갈수록 더 깊어  
정이 들고 더 깊이 사랑하는  
당신과 나의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추억들 . . .  
가슴속 깊은 곳으로 부푼의 순수한 사랑  
. . .

이것은  
내 생애  
기나 긴 여행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의 산물

그저 쳐다 봄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짐짓 찾으려 헤메고 찾은 것은 정작 아니다.  
오직 신성한 창조적인  
내 생애의 대작이다.

회원 모집



후년 신년 年輪을 헤엄하는 뿔뿔 땅에 삼의삼을  
 깎는 것도 자살은 못한 일이며 所重한 마음의 갈래와  
 늦이機를 飯床 위에 엮는 것도 또한 所重하리라  
 생賞합니다.

自慢스럽기만한 奏節 앞에 득점머리 두드려와서  
 슬어현 띄어고 또는 공은 번에서 無窮한 着點을  
 向한 뜻많은 愛棋家 여러 사람의 連絡을 바랍니다.

연락 : 한인회 빌딩에 나 배동환 (763-9481)  
 로 연락 바랍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바랍니다.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회는 한인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이고 또한  
 금년 부터는 한인학교를 개교하여 운영  
 할 예정입니다. 회보 발간과 사무실 운  
 영비, 기탁 등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오늘날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은 10불씩이  
 고 한 세대는 15불입니다. 보내실 때는  
 반드시 수표를 이용하여 주시고 "회비"  
 혹은 "기부금"이라고 구별하여 명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을 오  
 려서 보내 주십시오.

이름	전화
회비	기부금
\$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19.	최이화	\$10
20.	서정원	\$10
21.	유정숙	\$20
22.	최희수	\$10
23.	자지나	\$10
24.	김지영	\$10
25.	김민희	\$20
26.	박희정	\$15
27.	김민정	\$15
28.	김민정	\$10
29.	김민정	\$15
30.	김민정	\$10
31.	김민정	\$15
32.	김민정	\$15

한인학교를 위한 기부금

애프 레드 오·홀 배	\$100
씨애틀 총영사관	\$250

이 회보는 서두수 박사님께서  
 펴어 보셨습니다.

## 이정길 T.V. SHOP

오랫동안 씨얼즈 백화점의 텔레비전 수리부에서 일해오시던 이정길 씨가 보다 저렴한 실비로 교포어려분께 봉사해드리고저 텔레비전 수리업소를 새로 개업했습니다.

칼라,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에 관하여 문의를 하실분은 주말이나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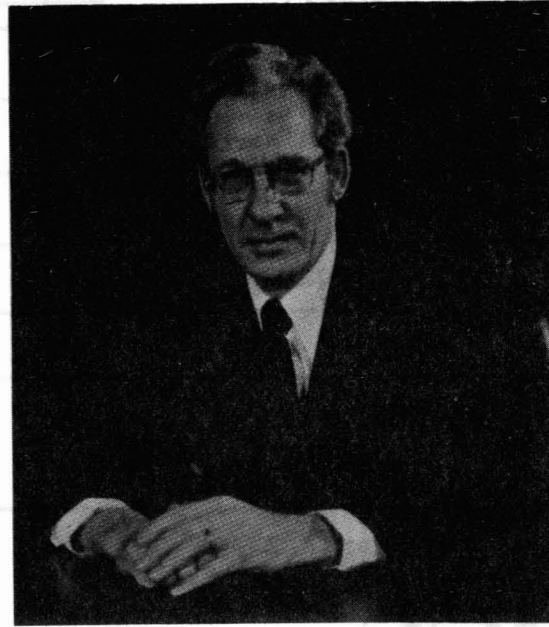
9700 30th Ave. S.W.  
Seattle, Wash., 98126 937-1586

비상시 전화 신고 요령

지난 4월 초에 와싱턴주 씨애틀의 Neighborhood House에서는 외국에서 이민을 해 온 각국의 단체 대표들과 씨애틀 시경국의경관이 4명 참석하여 비상시에 전화로 신고를 하는 방법에 관하여 회의를 갖었다.

씨애틀 시경국의 경찰관들의 말에 의하면 각국의 이민자들 중에서는 긴급시에 전화'911'을 돌리고 나서도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막상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배치될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포어려분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사고나 집안식구들의 사고나 친척들의 긴급을 요하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온 가족이 외신을 하여 비상시의 연락망을 항상 갖고 있도록 하여 영어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친지나 친구들과 연락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시 경찰국에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교포어려분들의 가정과 교포 사회는 우리 서로가 협조하여 지킴도룩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것 같다.



위의 사진은 "알프레드 홀베"씨라고 하는 미국인인데 이 사람은 항상 한국인의 교포 사회에 관심은 갖고 생활해 오던 중 본 한인회에서 한인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본 한인회의 정명화 부회장의 말을 전해 듣고 한인학교의 재정을 위하여 \$100.00을 기부해 왔다. 우리 교포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처음인 이분은 현재 모은행의 은행장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다.

### 헨리장 여행사 Henry Chang Travel Service

국제 국내항공권 취급  
이민 상담  
재정보증서 작성

Tel. (206) 523-7057

9002 12th Ave. N.E.  
Seattle Wash. 98115

### 온전면허 안내 책자 출판을 위한 기부금을 바랍니다.

한인회에서는 교포어려분의 온전면허 취득에 어려운 점을 덜어드리고저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온전 면허 안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번역이 완성되어 주 정부의 검토가 끝나서 인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인 교포들을 서로 돕는 의미에서 조금씩이라도 기부금을 보내 주시면 한인 교포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글 온전 안내 책자 출판을 위한 기부금	
이름	전화
\$ _____	

## 나의 의견

### "사춘기 아이들을 둔 부모의 걱정"

박명성

외국 생활을 하는 한국인에게 제일 문제되고 걱정거리가 있다면 자녀 교육일 것이다. 그건도 국민학교 까지의 어린이들은 처음 겪는 언어 장애만 잘 극복하든가, 아니면 외국어를 못하더라도 어린이들끼리의 공통어로 손짓발짓으로 잘 통할 만큼 활발한 성격이라면 크게 문제 될것은 없다고도 할수 있다. 수년전 독일에 가서 살때의 일이다. 작은 아이를 독일 국민학교 4학년에 전학시키고 며칠이 안되어 수학 여행을 간다는 통보가 왔다.

독일이 단어 하나도 모르고 독일 아이들의 생활 습관도 전혀 모르고, 부모 곁을 떠나 며칠간 생활 한다는 일은 불안 하기도 하려니와 거의 불가능으로 여겨졌다. 나는 당연히 수학여행을 압보내려고 했고, 작은 애도 앓아겠다고 할줄 알았다. 그러나 의외로 가겠다고 버티기에 보내놓고 밤잠을 못잔 적이 있다.

부모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는 잘 다녀왔고 무척 재미 있었다고 좋아했다. 이 때만 해도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니까 별다른 복잡한 고민 없이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해 주어 고맙다고만 여겨왔다. 그후 다시 미국에 와서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에 이르니까 가정에서의 윤리교육이 큰 두통거리로 등장했다.

우리가 한국에서 자랄때는 동양의 성현, 특히 중국의 지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려니와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 짜여져 있는 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재택식 이야기들을 별로 들으려고 는 아니하고, 그런얘기를 듣느니 엘튼 존이나 카펜타스의 테코드를 즐겨 들으려한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James at 16" 이란 연속극을 봤는데 어린 중학생, 제임스가 16세 되던날 등정을 읽는다. 그 삼촌은 미너가 기다리는 호화로운 호텔 방 일식을 제임스에게 생일 선물로 준다. 그때 나는 두 아이와 함께 이 화면을 보면서 무척 속이 상하고 썩스럽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후 이일에 대해 두 아이와 같이 얘기를 주고 받아 보려고 기획을 노리다가 오늘까지 미루고 말았다.

# 김철준

# NEW YORK LIFE

#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232-9207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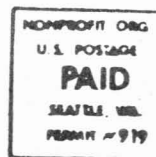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 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0505 000003145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